

현장시선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도민과 함께 생각하는 신교통수단 공론화 필요

제주의 인구는 69만5000명이며,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차량 등록대수는 역외리스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4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은 교통수요에 비해 교통시설의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교통시설 공급을 위한 공간부족, 환경규제, 재원확보 문제, 재산권 보장 등에 의한 민원 제기로 인해 교통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과 관광기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경량전철, 신에너지 바이모달 트램, 저상굴절차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소형계도열차, 전기버스, BRT 등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 말에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 공평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공평회에서는 다양한 신교통수단 중에 자기부상열차가 환경성, 경제성, 편리성에서 가장 많은 도민들이 선택한 수단으로 선정됐다.

에서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중요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획 결정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문제는 향후 교통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

현재 제주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고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수송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제주목관아지를 향토도서관으로 제안한다



양홍호 관광학 박사

에서 보기만 해야 하는가? 민간소유의 문화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제주목관아지를 제주의 향토도서관으로 운영제안을 요청한다. 경복궁안에 고종의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집옥재는 이미 서울시민에게 개방됐고, 400년 전에 세워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언도서관 역시 찬란한 역사와 함께 세계의 학자, 학생, 시민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해리포터의 배경이 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도서관이 우리의 문화 재처럼 품격 숨겨져 전시장소로만 남아 있는게 아니라 관광지와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기야 연필, 붓, 치약,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목관아지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개방해 소통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전통과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또한 야간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 위기속 혼연일체 수준 정책 추진”

도·의회 ‘정책 협치’ 행보

○...민선 7기 원도정 출범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2년 6개월만에 상설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정책 협치’를 가동하며 향후 행보에 주목.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10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

이들은 코로나19 속에 도민 안전과 ‘제주형 뉴딜 TF’를 꾸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혼연일체 수준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합의.

선물 상한액 상향 업계 분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관련업계가 분주.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월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일부터 시행.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10만~20만원 미만 선물 세트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

재난지원금 신청한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았는데, 고유정은 1인 단독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사설

무서운 코로나19, 추석 풍습까지 바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뀐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풍경도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은 모처럼 가족이 모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주에선 추석을 앞두고 음력 8월 1일을 전후해 집안마다 친척들이 모여 별초를 합니다. 다른지방에 사는 가족들도 별초 때만큼은 해마다 참여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추석 차례도 간소하게 지낼 것

으로 보입니다. 예전엔 친척집을 끼지 않는게 없었습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풍경도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계속 100명대의 등 간소하게 차례를 지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좋은 가격 “지금부터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품질 면에서 당도는 좀 떨어지고, 크기는 커 좋은 가격형성에 불안감도 벌써 감지됩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에 상당량은 지난 8월 관측조사결과 52만 8000t 내외로 예측됐습니다. 제주 지역 작과가 골고루 잘 된 데다 지난해 많이 달렸던 서귀포시 지역도 겨울 온난한 기후로 화아분화 촉진에 작과량이 일부 늘었고, 긴 장마로 과실비대도 수량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영향으로 다른 지방 과수의 큰 피해에

해결이 현상에 의한 서귀포시 지역 생산량 감소예상 등으로 좋은 가격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산과 2019년산 감귤가격 하락사태에 의한 반등심리도 한 몫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관측조사결과 당도와 크기 등 일부 품질이 우려되고, 서귀포지역 물량도 예상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측돼 제값받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와 행정, 농협은 지금부터 수량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열매 크기는 42.7mm로 전년·평년보다 각각 0.3mm, 2.5mm 컸고, 당도는 6.7브릭스로 전년·평년보다 각각 0.1, 0.6브릭스 낮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복순(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의료안내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 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안동김공 신희(향년 7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